



〈회사개요〉

상 호 : (주)우영  
 대표이사 : 박기점  
 본 사 : 서울 도봉구 창동 632-39  
 주생산품목 : IC Socket, PLCC  
 Socket, D-Sub Connector  
 반도체 Lead Frame 등 다수  
 설립일 : 1977. 8.



박 기 점  
 대 표 이 사

을 하였으며, '82년 박기점 대표이사가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립후 同社는 15년이란 세월동안 사업영역을 계속 확장하여 현재까지 전자부품, 기계금형, 금속, 전기 등 4개의 사업분야를 이룩해 왔으며 현재 종업원 수는 5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주)우영의 중요한 연혁을 살펴보면 '82년 국제금형 및 관련기기전 최우수상(상공부장관) 수상을 비롯 '84년에는 U.L마크 획득, 같은해에 한국전자전 신제품경진대회 최우수상, '86년에는 철담산업훈장을, '90년에는 다시한번 한국전자전 신제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상공부장관)을 수상한바 있다. 이렇듯 同社의 연구기술력은 물론 전직원의 단합된 저력은 과히 대단하다 하겠다.

**작**년도 매출액 135억원, 금년도 매출목표 210억원, 내년에는 300억원 목표달성을 설정하고 있는 同社는 올해목표인 21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同社의 주생산품목(전자분야)을 살펴보면 IC Socket, PGA Socket, PLCC Socket, D-Sub Connector, Card Edge Connector, IL Connector, 반도체 Lead Frame 등 수십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거의 전부가 WOO YOUNG 자

**本**誌는 "우영의 슬기를 세계로"를 사훈으로 미래의 후손에게는 질적으로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의욕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주)우영을 찾아 보았다.

**도**봉구 창동에 자리잡고 있는 (주)우영의 본사 건물은 15년이란 세월답게 믿음직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지난 '77년 우영산업사로 출범한 同社는 '81년 (주)우영으로 법인전환

체브랜드를 부착하여 해외로 수출 및 국내 내수로 충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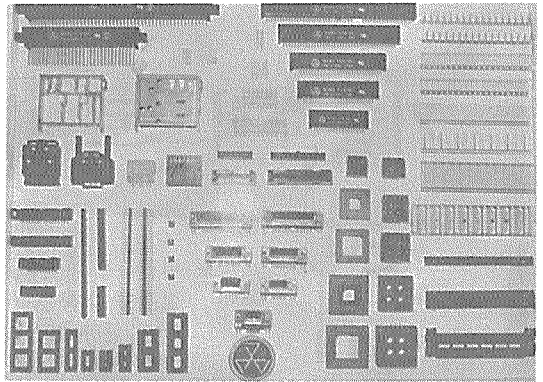
**세** 계적 초정밀 부품업체로 영원히 남겠다는 박기점 대표이사는 KIST에서 정밀기계, 소성가공을 전공했던 순수엔지니어 출신, 오늘의 우영이 있기까지는 부단한 노력을 해온 장본인이다. 우영의 자랑에 대한 本誌의 질문에 박기점 대표이사는 "우리 우영은 아직 자랑할 것이 없어요. '94년이나 가서야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분들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 우영가족은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재 서울을 본사로 평택, 반월, 오산 등지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同社의 자랑거리는 자녀들의 장학금을 100% 지급하고 있으며, 독특한 기금운영제도가 있어 봉급생활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택 및 목돈마련에 거의 무이자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노사관계도 대화형식으로 항상 간부측에서 먼저 문을 열어 놓고 지낸다고 한다. 이점에 대해 박기점 대표이사는 "우리 우영가족은 모두가 주인입니다. 단지 제가 하는 일은 내·외적인 상황과 여건을 판단하여 순탄한 행로를 제시할 뿐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하니 노사관계는 좋은 편이지요"라고 말하고 있다.

**특** 히 同社의 자랑거리는 지난 4월 입사 3년 차 직원을 뽑아 동남아 여행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 두명이 아닌 120명씩이나 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동남아 여행중 타국의 제조업체 견학이 가끔 있었는데 직원들이 직접 견학을 하고 나더니 근무하는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 부 및 업계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박기점 대표이사는 "저희는 10여년동안 공채생을 모집하여 인력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



사 입사후 2~3년이 지나면 질높은 기술을 익히지요. 이때 타회사에서 손을 뻗는다 이겁니다. 정말 눈뜨고 당한다고나 할까요. 이럴 때가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입니다. 스카웃 문제는 앞으로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는 공장이 지방 여러 곳에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적인 인구분산책의 일환으로 많은 업체에서도 지방으로 공장을 건설하여 가동중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도시가 사람이 더 없어요. 왜 그런고 하면 아무시설도 없는 변두리에 공장을 지어 놓았다 합시다. 즉 사람이 살아가려면 살 집도 필요하고 상점도 필요하고 학교, 문화시설, 등 필수적인 것이 있지요. 결론적으로 사람을 살게끔하는 시설이 있고나서야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장이 그곳에 설 수 있다고 생각되요. 하지만 지금은 거꾸로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의 부족으로 사람들은 수도권지역으로 모여든다며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분야는 이러한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기** 술인을 천직으로 기술개발을 목표로 세 계적인 초정밀 부품업체로 영원히 남겠다는 (주)우영은 15년이란 경력을 자랑이 아닌 겸손으로 신제품으로 주위를 놀라게 하는 저력 있는 기업이다. 同社가 목표로 하는 '94년에 다시한번 本誌가 찾을 것을 약속하며 눈코뜰새없이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同社를 뒤로 하였다.